

책의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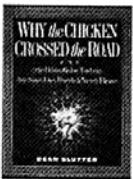
부처님 얼굴



동·서양에 흩어진 부처님 상화 95개를 정관(正觀)할 수 있는 <부처님 얼굴(Buddha Book: A Meeting of Images)>은 헨리 마티스(화가),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감독), 백남준(비디오 아티스트) 등이 그린 부처님 상화와 동·서양의 박물관·사찰 등에 소장된 희귀본 부처님 상화들을 모았다.

이 책은 미국 불교사자 <트리사이클>의 편집인 프랭크 오린스키가 부처님 상화를 선별하고, 미 콜럼비아대학 로버트 트루만교수(인도-티벳학)가 현대적 해석을 붙였다. 美 Chronicle Books 판. (96 pp. ISBN 0-81181-777-6)

닭이 길을 건넌 까닭은



우주적 보편성을 파헤친 진지한 이야기이지만 쾌활한 모험이 있는 <닭이 길을 건넌 까닭은(Why the Chicken Crossed the Road)>은 현대인의 문화적 배경을 일상의 언어로 깊이 있는 깨달음의 가르침을 밝혀낸 문화비평서.

60년대 히피세대인 딘 슬러터는 <롤링 스톤의 '만족(Satisfaction)' 노랫말과 '티벳 사자의 서'를 비교하는 등 대중문화 속에서 깨달음의 화두를 찾고 싶었다'며 저술 동기를 밝혔다. 美 Putnam 판. (224 pp. ISBN 0-87477-905-7)

성덕태자 사전



일본불교 중흥의 시조로 알려진 성덕태자(聖德太子)의 생애와 사상, 불교신앙 등을 집대성한 <성덕태자 사전>이 이시다 쇼호오(石田尚豊)의 편집으로 출간됐다.

일본내에서 '후양'과 '비판'이라는 양극단의 평가를 받아 온 성덕태자와 관련하여 중도적이고 객관적 입장을 견지, 집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차대전 이후 성덕태자 관련 연구와 학문적 성과를 근거로, 불교사 고대사 고고학 미술사 건축사 등 모든 분야의 성과물을 모았다. 日 백서방(柏書房) 판.

'무욕의 삶'으로 행복한 사람들

'오래된 미래-라다크로부터 배운다'



라다크인들은 무욕의 불교적 삶을 산다.

사람이 산이고 황갈색에서 연초록까지 다양하면서도 따뜻한 색조를 띤 거대한 산정들의 고원 '작은 티벳' 라다크. 한걸음 디딤때마다 환상적인 모래와 먼지구름이 일어나 '정토(淨土)'라고 부르기에 웬지 어색한 곳. 그러나 웃음뚱 얼굴들을 마주하면 생각은 이내 바뀐다.

무욕 무소유. 이들의 삶은 그 자체가 불교다. 순야타, 즉 공(空)의 철학이 이들을 중심에 자리잡고 있고 미술과 음악, 문화와 농업에 불교는 필수 없이 스며들어 있다.

녹색평론사에서 펴낸 <오래된 미래-라다크로부터 배운다>는 천년이 넘게 티벳 불교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자급자족의 삶을 꾸려온 히말라야 고원 라다크의 변화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찾는다. 저자 스웨덴 출신의 여성학자 헬레나 노르베리는 16년간의 현지체험에서 목격한 '근대화 과정'에 따른 유사값은 공동체의 생명력과 불교적 삶의 상실을 우려하면서 그 해답을 화염의 연기사상에서 찾고 있다.

저자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토록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여성학자 노르베리

16년간 라다크생활

서구 물질문명 유입

공동체 파괴 염려

않았다고 한다.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가 생활 속에 배어 있는 그들은 '개별적인 존재의 경계가 사라져 버리면 너와 나는 분리된 존재가 아닌 하나'라는 공의 자비심을 타고난듯이 보였다.

마을사람 타시는 이렇게 말한다. "비와 바람과 땅이 나무의 한 부분을 이룹니다. 궁극적으로 우주속의 모든 것이 나무를 나무로 만들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본성은 순간순간 변합니다. 이것이 공의 의미입니다. 사람은 독립된 존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식과 이해는 그것 자체로 충분하지 않으며, 자비심과 함께 가야 하니 위험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우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항상 다른 이들에 대한 염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비심은 이른바 깨달음의 방법이다.

그런 라다크에 변화가 시작됐다. 1974년 인도정부가 관광객들에게 개방하면서부터 개발이 시작되고 새로운 기술 때문에 빈부격차가 커지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갖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저자는 자비심으로 통치된 불교적 삶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잃어가고 있는 이들을 염려한다. 그러나 기회는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라다크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다. 서구문명의 개발위주논리는 결과적으로 환경과 인간성심의 파괴를 가져왔다. 어찌 라다크 뿐이겠는가. 헬레나 노르베리는 <오래된 미래-라다크에서 배운다>에서 인류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한명우 기자

명란자씨 '남산이 복산을 보며 웃네'

역사속으로 죽음기행



명란자씨

"어떻게 하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죽음을 읽으라. 그러면 삶이 보일 것이다." 저자 명란자씨(56·한국수필문학진흥회 이사)는 삶이 고달프다고 느껴질 때가끔은 자신을 죽음앞에 세워보는 일도 무익하지 않다고 말한다.

역사 속으로 찾아가는 죽음기행 <남산이 복산을 보며 웃네>(세운)는 부처님을 비롯해 세네카와 네로, 광해군과 마지막 황제 부의, 소크라테스와 송시열, 두보와 김삿갓, 모차르트와 슈베르트, 등소공과 스탈린 등 동서양의 역사적 인물 1백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집약시키면서,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그려보이고 있다.

6·25피난중 산골 뒷방에서 본 여동생의 시신, 10년뒤 중학생이던 남동생의 갑작스런 죽음과 심장마비로 인한 어머니의 외로운 죽음, 저자의 죽음에 대한 탐구는 남다른 경험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이 책을 쓰기 위해 자료를 모으는데만 30여년이란 긴 시간의 공을 들였

다. "남은 생을 생각해 보세요.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모두의 마음속에 있어야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은 없다. 생사란 본래 나는 것도 죽는 것도 아니라는 불교의 죽음관은 영원한 자유와 해탈만이 있다.

고는 시인은 책 추천사에서 "그대 최후가 그대의 전부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혼자의 창가에서 TV 화면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뜨거운 질문을 모르고 있다"고 적고 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한부분. 동서고금 1백여 인물의 드라마틱한 생애와 죽음을 압축하고 비슷한 죽음을 짝지은 이 책은 읽는 재미와 함께 자기 삶을 들여다 보고 내다보게 한다. 따라서 남녀노소 두루 볼 수 있는 가족필독서. 자살이 부쩍 늘고 있는 요즘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우)

인각사, '삼국유사의 산실...' 펴내

조계종 인각사(주지 대원)는 최근 인각사의 뿌리와 정신, 역사를 소개한 <삼국유사의 산실 인각사> 소책자를 펴냈다.

이 책자는 5천년간 면면히 이어온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주지스님의 서문과 함께 일연과 인각사의 인연, 삼국유사의 현대적 의의, 인각사의 모습을 그린 목은 이색의 '인각사 무무당기(無無堂記)', 인각사 복원 계획이 수록돼 있다.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역시이문 집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불법수행	현대불교신문사	역시이문
2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공강경	윤을순	신우당
3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9가지	성우·지연	민족사
4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	효림
5	불보살 명호이야기	이윤수	민족사
6	불교사상의 이해	동국대학교출판부	동국대학교출판부
7	무소유	법정	범우사
8	불교인문	조계종전집부	조계종출판사
9	알기쉬운 불교미술	동국대학교출판부	반쪽판사
10	스님의 맨발	한승원	문화동네

구입문의:(02)737-0695

"삼국시대 불교는 통치이념"

장지훈씨 '한국고대 미륵신앙 연구' 펴내



장지훈씨(대구효성가톨릭대 강사)가 펴낸 <한국고대미륵신앙연구>(집문당 판)는 불교가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만이 아닌 일반계층의 신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륵신앙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미래불사상과 지상천국사상으로, 혼란과 격동의 시기에 피지배계층이나 소외 집단에서 크게 신봉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또 당시의 왕들이 계율을 중시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은 미륵신앙이 유행되면서 전륜성왕의 계율에 바탕을 둔 법치국사상(正法治國思想)이 통치이념으로 확립되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삼국시대의 불교를 지배계층에만 국한된 특권종교로 보는 시각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서울지역 사무직 종사자 독서량

남자 16.2권-여자 10.9권

서울지역 사무직 종사자들의 지난 한해 평균 독서량은 남성 16.2권 여성 10.9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민 평균 독서량인 9.7권보다는 많지만 일 본 성인들의 지난해 평균독서량인 19.2권보다는 훨씬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월30일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김경희)가 서울지역 20대이상 사무직 종사자 및 아동·청소년들의 독서실태를 조사한 '제5회 국민독서실태조사 1997' 발표에 따르면 사무직 남성들의 독서시간은 평일평균 30분, 주말 42분, 사무직 여성들은 평일 41분에 주말 46분으로 TV시청시간의 25~50%에 불과했다.

"이렇게 비슷하다니"...30여 항목 소개

불경과 성경... 윤철광 지음

불경과 성경을 둘 다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비슷하다니..."하며 유사한 대목이 꽤 많음을 느낄 수 있다. <불경과 성경 왜 이렇게 같을까>에는 마야탕가 여인의 이야기와 사미리아 여자 이야기에서부터 공양과 헌금, 마가다크 카이사사와 요한, 평등한 석가모니와 하나님의 사랑 등 불경과 성경의 원문비교를 통해 30여가지 '같은 대목'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자는 가르침이 같다면 불교와 가톨릭 개신교가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종교가 필요한 것이지, 종교를 위해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 요지다. <서울출판미디어 9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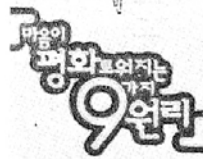
"부처님 말씀 마음의 평화 이끄는 과학"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김정빈 지음

화제의 책

"부처님은 일종의 과학자입니다. 다만 부처님의 과학은 마음의 평화(離苦得樂)에 관한 과학입니다." 지난해 위빠사나 명상법을 소개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펴낸 큰 호응을 얻었던 작가 김정빈씨는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9가지 원리>에서 불법을 통해 지금의 자신과 현재를 아는 것이 행복을 찾는 지름길임을 강조한다. 욕망의 마음은 과거와 미래에 속할 뿐 무욕한 마음만이 지금에 속함을 깨닫는다면 욕심을 버리고 지금에 충실한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삶의 정도라고 말한다.

정직과 순수, 법치와 이치 등 9가지 원리에 대해 각각의 이야기를 삼십여편 수필식으로 전개하고 있어 부담없이 읽을 수 있다. (도솔 7천8백원)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르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인 <기도>의 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기도 방법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는 현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옳은지요?"...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저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스님께서는 다시 집필을 시작,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 <생활 속의 기도법>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 할 때 지켜야 할 마음가짐까지, 세세한 일타르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임사 함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전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B6 / 160면 / 값 3,500원

생활 속의 기도법

"기도는 실천이지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성취 만큼이나 중요한 일인 것이다."



불교 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르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체험담을 엮은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가 실린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기도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I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II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 III 업벌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IV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 V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VI 기도인을 바른 길로

일타르스님의 알기 쉬운 불교책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르스님의 윤회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값 4,500원
-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르스님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값 5,000원
-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값 5,000원
- 범명경보살제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르스님의 두애변(無礙辯)을 기록·편집한 책 신국판 / 1~5권 각권 값 6,000원
-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생기는 일타르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0,000원